

나주혁신산단에 '저압직류 인증센터' 들어선다

165억 들여 2025년까지 조성 차세대 전력 핵심 직류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에너지신산업과 시너지 효과 기대

나주시는 차세대 전력시장의 핵심 분야로 손꼽히는 직류산업 육성을 위한 '저압직류(LVDC) 핵심기기 인증센터'를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 중 하나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직류기반 신재생 에너지와 직류부하 증가 흐름에 발맞춰 원활한 직류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센터에서는 가정과 건물 등 전기 사용처에 직류를 공급하는 저압직류 배전시스템과 전력기기에 대한 시험(성능)평가, 인증 등을 하게 된다.

나주 혁신산단에 구축 중인 '지능형 저압직류 실증사이트' 부지 내 전용공간에 들어서며 사업비 165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면적 1000㎡에 지상 2층 규모다.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센터에는 LVDC ±750V, ±380V 전원 및 부하 설비, 수용가용 LVDC 핵심기기 성능시험과 평가 장비 등 직류 관련 기기 인증 임무를 수행할 첨단 장비가 구축된다.

나주시는 한전에너지기술연구소, 지능형 LVDC 핵심기술 개발사업,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사업 등 이미 유치했거나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능형 LVDC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용가용 직류배전 핵심기기의 기술개발과 국내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표준 제품에 대한 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과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LVDC 배전시장은 2015년 6500억원에서 2025년 3조 3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관련 기업의 제품 인증을 위한 비용적, 시간적 부담 경감은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진수 기자 kms@kwangju.co.kr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담양군·담양군의회 촉구

담양군과 담양군의회는 24일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군과 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만큼 지역민의 열망을 담아 중앙정부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대구를 기반으로 한 광역철도인 달빛내륙철도가 개통하면 1시간대 생활권으로 광역경제권 기반이 구축돼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영호남 교류 활성화로 지속적 경제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동서철도망의 신설은 담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는 철도 교통망으로부터 소외돼서는 안된다”며 “지역민들의 열망을 담아 이번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당시 송정리-광주-담양간 36.5km의 '전남선' 구간이 개통해 1일 6회 왕복으로 운영되다가 1944년 국가총동원령을 내린 일제의 결정에 따라 폐선됐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누락됐으며 정부는 오는 6월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담양=노영한 기자 nyc@kwangju.co.kr

바쁘다 바빠...마늘 수확 한창인 강진 들녘



초여름 날씨를 보인 24일 강진군 작천면 들녘에서 마늘 수확에 나선 인부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작은 목소리도 귀 담아 들겠습니다”

강진군 '군민소리함' 운영 취약계층 민원 접수 창고

강진군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군민 소리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군민 소리함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반영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민원봉사과 휴게실 내에 설치됐다.

소리함 민원은 군민 뿐만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군은 분기별로 소리함을 개봉하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등 군정 발전 방안에 활용할



강진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군민 소리함'.

계획이다.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해 실질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통해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이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군, '침구류 지원 사업' 추진 다음달 4일까지 신청-접수

화순군이 숙박업소 환경 개선, 클린 화순 여행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침구류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숙박시설인 관광펜션업과 한옥 체험업, 외국인 도시민박, 농어촌 민박 4개 업종이다.

분리형 침구류(이불, 베개)를 객실당 2벌을 제공하고 위탁 세탁비를 지원한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숙박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서는 6월 4일까지 화순군 관광진흥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관광객의 만족도와 관광 화순의 이미지를 높여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 특히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식품 안전관리 사업평가 함평군, 7년 연속 '우수'

함평군이 7년 연속 식품 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1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 기초단체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올해 식약처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시책 ▲가점 사항 등 총 4개 분야를 평가해 상위 1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현장 보고장비 활용, 업체 점검, 합동 단속 참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수, 민원 기한 내 처리, 식품 안전관리 우수 사례, 업무 관심도 등 전반적인 평가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식품 안전관리가 취약한 노후 영세업소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위생 점검과 행정 처분으로 위생 수준 및 친절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것도 호평받았다.

함평군 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 및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범업소, 안심식당 지정-운영으로 지난 7년 동안 단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 관리-점검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함평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